

멜로디 표현력에 따른 두 가지 연습방식에 대한 비교 - 근음기준 방식과 가이드 톤 방식을 중심으로

김형천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 hyung_chun@yahoo.com

Comparison With Two Ways To Practice Melody Expression For Improvisation - Focused On The Root Oriented, and The Guide Tone Oriented Methods

Hyoeng Chun Kim
Dept of Popular Music, Yoe Joo Institute of Tech.

요 약

많은 해 동안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한 가지 방식으로 기타 지판을 습득해왔다. 바로 ‘근음기준 코드 톤 방식’이 그것인데 기타 상에서의 코드 톤 모양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음악 교육 경험에서 가이드 톤 기준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근음기준 연습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학생들이 멜로디적인 즉흥연주를 할 때 더 효과적인지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기타교육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초기 연습이 어떻게 멜로디적인 연주와 음악적인 연수에 영향을 주는지에 그 초점이 있다 하겠다.

1. 서론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학습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코드 톤에 대한 연습이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학생들의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등한시 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타는 잘 다루지만 줄업을 할 때 까지 코드에 맞게 연주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모색하던 중 가장 기초인 코드 톤을 배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음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연주력이 있는 학생들조차 한 줄에서의 코드 톤 파악이나 선택한 가능한 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전개해 나가는 모티브 방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기계적으로 맞는 음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멈추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이 즉흥연주 상황에서 음악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1.1. 연구방식

기타란 악기는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블록 악기¹⁾로 구분된다. 프렛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 같은 구분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블록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장, 단점은 학생들의 연습 단계에서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기로 한다. 블록악기의 일차적인 장점이라 함은 12키를 연습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같은 멜로디라도 그 운지법이

1) 기타, 베이스처럼 프렛에 의존하여 모양을 5개, 혹은 7개 블록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악기.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반드시 장, 단점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들의 기초적인 연습 단계에서는 장,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타상의 문제점 때문에 기타 전공 학생들의 음악적인 부분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명의 비슷한 연주력을 가진 학생들을 실험에 참가시켰다. A 그룹 10명은 블록악기의 전형적인 연습 형태인 근음을 기준으로 한 접근 방식으로 연주를 시키고, B 그룹 10명은 가이드 톤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으로 연주를 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대다수가 가이드 톤 기준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B 그룹은 가이드 톤 연습을 사전에 일주일 동안 시키고 진행하였으며, 이 두 그룹을 통하여 어느 그룹이 보다 더 멜로디적인 연주 느낌을 내고 더 하모니에 동화되어지는 연주를 보여주는지 파악한다.

이미 가이드 톤을 어느 정도 연습한 학생 3명과 나머지 17명 중 7명에게만 가이드 톤 접근방식을 연습 시켰다. 연습은 두 달 동안 천안에 소재한 J 실용음악학원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가이드 톤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을 A, 연습을 한 그룹을 B라고 정하였다. 학생들의 연습시간의 관리는 원장 선생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B그룹은 가이드 톤의 위치와 코드 진행 상에서의 각자의 연결되는 모양과 방법을 파악 하도록 하였다. 반면 A 그룹은 근음 기준에서 코드 톤과 스케일연습을 시켰다. 학생들의 즉흥 연주력은 거의 비슷하였으므로 두 그룹 모두 초반 연습에 기초적인 화성학 설명이 병행 되었다.

2. 본론

2.1 근음 기준 접근방식

통상 근음기준이라 함은 해당 악기의 가장 저음 현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코드 또는 아르페지오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타에서 6번 줄과 5번 줄을 베이스로 하는 코드형태를 나타내는데, 코드 형태이던 아르페지오, 또는 스케일을 기초 단계에서 익힐 때 상당히 편리한 방식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당시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근음을 기준으로 모양을 암기

하는 방식으로 빠른 경우 한 주 내에도 12키에 대한 코드 톤 이해가 가능한 방법이다.

기타의 A현에서 근음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발생하는 한 옥타브 위의 B현에서의 근음까지 범위를 1번 패턴이라 부른다. 같은 A현 근음에서 안쪽으로 발생하는 G현에서의 근음까지 범위를 2번 패턴, G현에서 높은 E현까지 발생하는 두 개의 근음의 범위를 3번, 낮은 E현에서 D현까지 두 개의 근음 범위를 4번, 마지막으로 D현에서 B현까지 두 개의 근음을 포함하는 범위를 5번 패턴이라 칭한다.

이 다섯 개의 근음중심패턴으로 코드 톤과 스케일을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타 연습 방법이다. 초기 습득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만 향후 기계적인 연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하는 방법이다. 피아노에 비하여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이 음악적인 부분이 약한 이유가 여기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근음 기준 접근방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특정 곡 코드진행에 따라 한 포지션²⁾에서 해당되는 모든 아르페지오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습득과정에서 무작위 방법은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1, 3, 5, 7도의 순서로 상, 하행 모두 연습시켰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코드 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한 포지션에서 순차적으로 연주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한 상태는 평균 2주일 이상 걸려서야 완성되었다.

2.2. 가이드 톤 기준 접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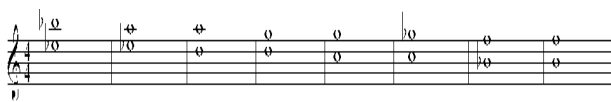
코드에서 3음과 7음을 기본적으로 가이드 톤이라 하며 이는 코드진행시 화성적인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구성 음이다. 대표적으로 II-V-I 진행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Autumn Leaves' 처음 8마디 순환 패턴으로 가이드 톤 연결 연습을 먼저 시켰다. 'Autumn Leaves'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익숙한 곡이고 가이드 톤 연결시 완전4도권³⁾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첫 여덟 마디 안에 메이저 II-V-I과 마이너 II-V-I이 동시에 공존하는 곡이기 때문이다. 곡이 진행함에 따라 가이드 톤들의 연결을 살펴보면

2) 일반적으로 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범위는 4프렛 정도의 범위를 말한다.

3) 완전 4도 베이스 진행은 가장 안정된 코드 진행으로 재즈의 기본 진행인 II-V-I 또한 4도 진행을 따른다.

시작 코드 3도 7도는 같은 줄에서 다음 코드의 7도 3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작 코드의 3도는 다음 코드의 7도로 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며 그 다음 코드에서 반음 내지는 한음 하행 패턴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 가이드 톤에서 나타나는데 기타에서의 모양을 살펴보면 II-V-I 패턴에서 II-7의 가이드 톤이 동일 모양으로 반음 하행하면 IM7의 가이드 톤이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II-7과 IM7 사이에 V7에 나오는 트라이톤⁴⁾만 적용시키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가이드 톤의 하행 곡선이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연습방식은 C-7 / F7 / BbM7 / EbM7 / A-7b5 / D7 / G-7 / G7 //을 기반으로 3, 4번 줄(G, D string)에서 먼저 연습을 시작 하였다. 기타의 모든 줄 세트에서 가이드 톤 모양이 발생하지만 3, 4번 줄을 선택한 것은 베이스와 1, 2번 줄에서 발생하는 텐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가이드 톤

코드 사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 톤을 익히는 방법으로 그림2의 방식으로 3, 4번 줄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음정모양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메이저 7 코드는 다이아토닉⁵⁾ 상에서 IM7과 bIIIIM7인 경우 9th와 13th 텐션을 기본 텐션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모든 메이저7 코드에서는 리디안 스케일에서 파생된 9th, #11th, 13th 텐션을 적용한다. 마이너7 코드는 9th와 11th 텐션을 먼저 연습하고 마이너7(b5)는 b9th과 11th를 도미넌트7 코드는 메이저에 대한 도미넌트는 9th, 13th을 마이너에 대한 도미넌트는 b9th과 b13th를 습득시켰다.

특히, 다른 코드에서 보다 학생들의 가장 이해가 부족한 도미넌트7은 세컨다리 도미넌트⁶⁾에서 메이저, 마이너의 두 가지 구분을 이해시킨 이후 세컨다리 도미넌트의 트라이톤⁷⁾ 대리코드인 서브세컨다리 도

4) 증4도 또는 감5도 음정을 나타내며 도미넌트코드를 결정 짓는 두 구성음이다.
 5)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7개의 코드(IM7, IIIm7, IIIIm7, IVm7, V7, VIIm7, VIIIm7b5)를 의미한다. 일명 가족코드라고도 부른다.
 6) 기본 5도인 도미넌트를 제외한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도미넌트로 변형시킨 기본 5 가지 코드.(I7, II7, III7, VI7, VII7)

미넌트⁸⁾를 먼저 이해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는 그 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교습 방법의 폐단으로 판단된다.

기타란 악기의 기계적인 모양으로 먼저 습득한 이후 소리에 대한 관심이 더 효과적이므로 3, 4번 줄에서의 가이드 톤 모양을 토대로 텐션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접근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모양을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

근음 기준으로 연습한 학생들과는 다르게 가장 낮은 베이스 근음부터 연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가이드 톤으로부터 연주가 시작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적용시켰다. 이 경우 인지한 코드에 따라 처음 반응하는 것이 근음이 아니라 3도, 7도이므로 일률적인 모양보다는 음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현상이 연습 시작 2주부터 몇몇 학생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3. 공통연습과제

두 그룹 공통 연습곡인 'Autumn Leaves'에서 코드 톤과 가이드 톤 연습을 마친 후, 개별적으로 무작위 코드 진행을 선택하여 보다 즉흥연주 상황과 비슷한 경우로 연습을 진행시켰다. 코드 진행은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코드진행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여 다이아토닉 스케일로 대충 연주하여도 틀리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연습과정을 거쳐야만 코드진행 자체가 비 화성 진행에서도 학생들이 코드 톤 내지는 가이드 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연주가 가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범위의 화성학 설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연구에 필요한 음계 부분 정도만 보충 학습을 시행하였다.

3. 결론

두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코드에 대한 이해와 연주에서 사용해야하는 텐션, 스케일의 관계를 파악한 것인데, 다만 그 연습의 최초 근간만 근음기준과 가이

7) 통상 도미넌트 코드에 발생하는 증4도 음정인 3음과 b7음을 말한다.
 8) 세컨다리 도미넌트의 b5도 거리에 있는 같은 트라이톤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도미넌트. 반음하행 해결하는 얼터드 코드를 의미한다.

드 톤 기준으로 상이한 상태로 유지시킨 것이다.

연습과정이 모두 끝나고 실질적인 즉흥연주 상황에서 실시한 실험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코드진행으로 실시하였다. 개인 편차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할만한 코드진행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 (1) Eb6-D7-Gm7-F7-Bm7b5-Ab7-GbM7-Fb7
- (2) G7-Bb7-FM7-Em7b5-Eb7-Dbm7-A7-D7
- (3) Dm7-BbM7-Gb7-B7-Db7-Abm7-F7-Eb7

학생들의 훌륭한 연주를 기대한 것 보다 특정 방식으로 연습한 두 그룹의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그 평균결과는 이렇다.

(1) 근음 기준

- 10명 중 8명은 코드 진행에서의 음들의 배열이 순차적이었다.
- 10명 중 10명 모두 가이드 톤 기준 보다 두 배정도 이상 많은 음을 사용했다.
- 연주에서 시작 음이 근음인 경우가 프레이즈의 70~80%를 나타냈다.
- 연주에서 나타나는 리듬적 표현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단조로운 패턴을 형성했다.
- 텐션보다는 1, 3, 5, 7도 중 한음인 코드 구성 음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심하게 보였다.

(2) 가이드 톤 기준

- 연주에서 음들의 음 배열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10명 중 9명이 비교적 적은 음들로 솔로를 구성, 평균 한 마디에 3~4개 음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 10명 중 10명 모두가 시작 음으로 3, 7도 또는 텐션 음을 선택하였다. 이는 근음부터 순차적으로 상, 하행 연주를 하는 것 보다 3, 7도에 대한 주변 음들의 인지를 통한 모양이 아닌 소리에 반응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 음 수가 적은 관계로 리듬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10명 중 6명은 코드 톤 이외의 텐션으로 해결하면서 코드와의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아직은 익숙한 연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멜로디와 음악적인 연주는 가이드 톤 기준으로 연습한 그룹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타 전공 학생들이 취하고 있는 근음기준 연습방법이 기계적인 패턴과 빠른 프레이즈 연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음악적인 부분과 리듬적인 요소 즉, 멜로디와 화성적인 연주에서는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가이드 톤 기준이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음기준 연습방법과 가이드 톤 연습방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적인 연주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 전공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 더욱 발전되어 향후 음악교육에 있어 보다 나은 방법을 학생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정재열, 기타 스케일 교본, 제즈비즈, 2008
- [2] 요우후 타카시, 기타로 배우는 음악이론, SRMUSIC, p.56, 2007
- [3] 아키라 토미두카, 제즈기타교본 2, 삼호ETM, p. 23-24, 2010
- [4] 나루세 마사키, 신동수, 기타 스케일 활용 레시피 :보고 연구하고 익힌다! 일렉트릭 기타 스케일 실용 가이드, SRM, 2009